국내
마감시황

2025.12.3.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수에 코스피 반등
원전·방산주 강세, 바이오·은행주 약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4,036.30pt (+1.04%)	932.01pt (+0.39%)	570.79pt (+0.90%)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67.40 원 (-1.1 원)	3.3710% (+2.5bp)	6,855.00pt (+0.22%)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8,986 억	+1,120 억	+1,985 억
외국인	+1,603 억	-176 억	+5,800 억
기관	+7,564 억	-143 억	-7,868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및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9거래일만에 4,000pt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04%, KOSDAQ은 0.39%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13.0조원, KOSDAQ은 9.8조원을 기록했습니다.
- 외국인은 KOSPI를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KOSPI에서 유통과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운송/창고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에서 7천억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제약과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원전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해 타협에 실패하면서 종전 기대가 낮아졌고, 방산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소캠에 디램 물량 절반을 공급한다는 보도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조선, 전력기기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근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바이오 섹터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은행주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5.10%), 두산에너빌리티(+4.53%), 삼성전자(+1.06%)가 올랐고, 신한지주(-1.84%), 리가켐바이오(-1.15%), SK하이닉스(-1.08%)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